



조간 제799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음력 11월 14일)

## 광주·전남의 희망찬 미래…시도민 선택에 달렸다



6·3 지선…참일꾼 찾자

<1> 프롤로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가장 큰 일정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지역 정치의 구조와 물뿌리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함께 점검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은 오랫동안 특정 정당 중심의 안정된 구도 속에서 지방권력이 형성돼 왔다. 그 과정에서 경쟁의 밀도와 선택의 폭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여기에 공천 방식 변화와 정치 지형의 이동이 맞물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결과보다 과정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시·도 교육감,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면면과 정치 이슈 등에 대해 살펴본다.

민주당 상향식 공천 전면화…경선 결과가 곧 본선 성적표  
조국혁신당·야권 도전 본격화, 텃밭 정치 균열 여부 주목  
통합론·무투표 당선·선거구 획정, 복합 변수 동시 분출도

광주·전남의 향후 4년을 좌우할 지방권력 재편의 시계가 새해와 함께 본격적으로 돌아간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지방정부와 의회를 다시 짜는 선거로, 광주·전남 정치 지형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 부활 44년을 맞는 이번 선거는 제도의 성숙과 권력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5명, 기초의원 316명을 새로 선택하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 교육을 이끌 수 있는 시·도 교육감도 각각 뽑는다.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향후 지역 발전 전략과 재정 운용, 정책 결정의 중심축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대규모 정치 일정이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예년과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면서 전통적 정치 기반인 광주·전남에서는 예비후보군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여권 내부 경쟁이 조기에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사실상 본선으로 이어져 온 지역 정치의 판행이 이번에도 유지될지, 아니면 군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상향식 공천 도입을 둘러싼 당내 기류 변화는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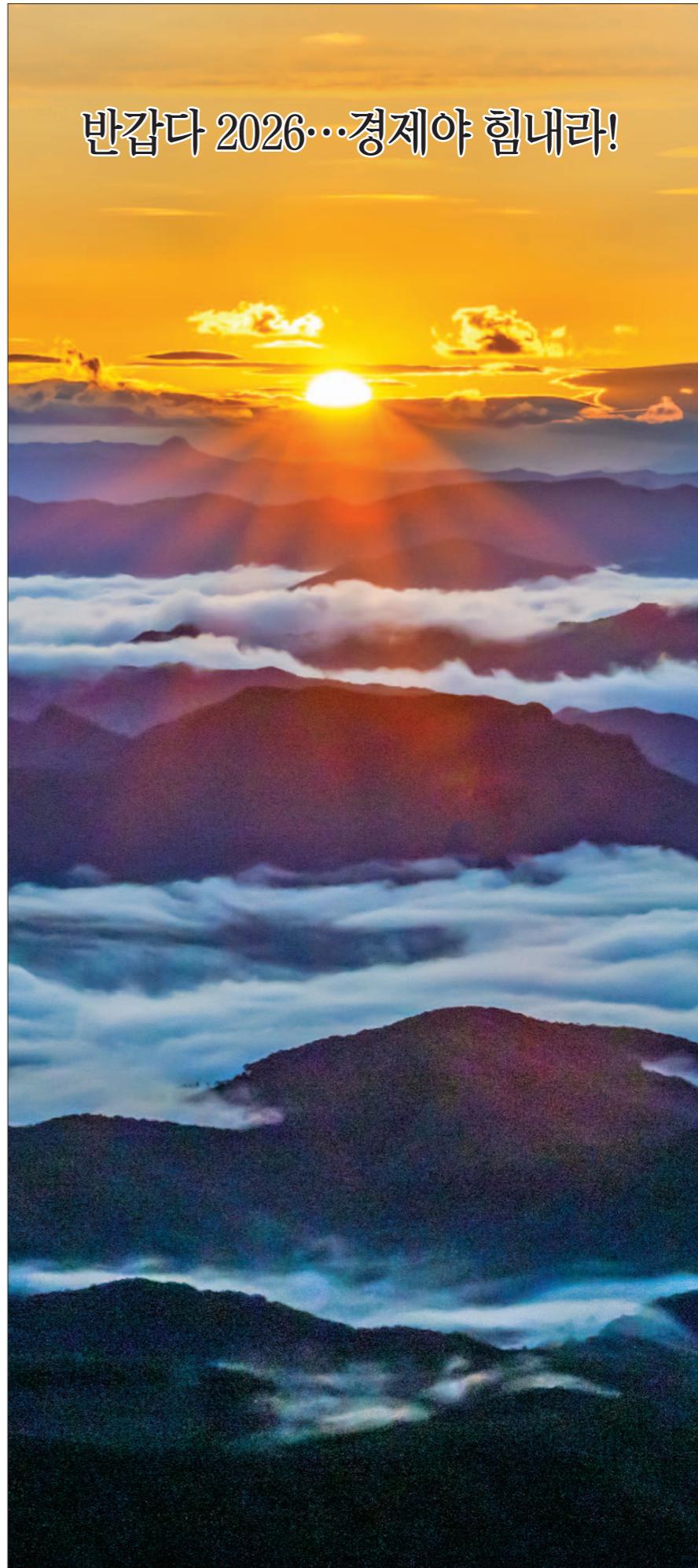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의 도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총선과 재보

궐선거에서 일정한 파급력을 보여준 정치 세력들이 민주당 독주 구도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광주·전남 정치가 '안정'에서 '경쟁'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지방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 자체가 지역 정치의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경선 결과가 곧 본선 결과로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경선 를 변화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징계 결과 등이 공천과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각종 뉴스와 기사들이 지역 경쟁에 확산되며 공정한 경선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와 징계 여부가 민감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경선 국민의 흔적 양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지역 경제 '완만한 반등'…환율 등 대외변수는 '경계'



전문가 새해 경제전망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장기 부진의 터널을 지나며 새해부터는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연구원,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등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다만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등 구조적 부담으로, 2026년 지역경제는 '완만한 반등 속 경계 국면'이 될 것이라고 전

단기적 경기 대응…산업 구조 전환·내수 기반 강화해야

망한다.

광주·전남 경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으나, 하반기 일부 제조업과 소비 심리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 자동차와 전기장비, 전자부품 등 생산이 늘었고, 소비심리도 반등하며 반등을 다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

다는 평가가 많다. 전통 제조업과 벤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대출에 의존해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건설 경기 위축과 미분양 아파트 적체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조선업을 제외한 주요 산업에서 뚜렷한 반등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해 경제가 급격한 반등보다

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주력산업 업황이 개선될 경우 긍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대외 여건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율 변동성과 보호무역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수출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내수 기반의 취약성과 인구 감소, 고용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 역시 부담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지역경제의 방향성 자체는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국책사업 추진과 대형 개발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은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단기적인 경기 대응과 함께 산업 구조 전환, 내수 기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운다.

이승호 기자 photo25@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고물가·고환율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하지만 '힘차게 질주하는' 말(馬)처럼 '희망과 전진, 상승의 해'인 병오년, 국민 모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희망찬 새해 무등산 위로 해가 솟아 오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